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1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래파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하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 하였다. 이들은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자코모 발라의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는 대상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그려 속도와 시간을 표현하면서 대상의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지 않게 나타내어 움직이는 물체는 흔들린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들의 작품 구성에는 여전히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 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끝에 추를 단 줄을 빠른 속력으로 돌리면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하여 본질적인 생김새를 띠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것이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이다.

키네틱 아트 작품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띤다. 이러한 특성을 ‘비물질화’라고 하는데,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태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움 가보와 같은 작가들은 작품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전기 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알렉산더 칼더는 전기 장치 대신 공기의 흐름으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그는 원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으로 ‘모빌(mobile)’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 금속판들은 막대에 매달려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마디가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부드럽게 흔들리거나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된다.

[나] Certainty, like permanence and immortality, is one of those conditions we long for despite a great deal of evidence to the contrary. Certainty often confers* control. And we badly want control in this strange cosmos we find ourselves in. In his classic study *The Golden Bough*, anthropologist James George Frazer discusses how primitive people developed magic so that they could control a world filled with the uncertainties of lightning, storms and vicious** animals. The Bantus in Botswana burn the stomach of an ox in the evening because they think the black smoke will gather the clouds and cause the rain to come. Certainty offers us safety, stability, reliability, predictability, rules for behavior. If I am completely certain that it is unethical to harm other people’s careers in order to advance my own, that certainty provides a clear and constant guide for how to conduct my professional life. Augustine’s absolute certainty about theological*** and ethical matters may well have been an extension of a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sire for certainty.

* confer: 부여하다 ** vicious: 사나운 *** theological: 신학의

[다]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라]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 없다. 물론 속도를 맞추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중략)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점점 빨라져 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 버린 「모던 타임스」 속 찰리 채플린의 곤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략)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과시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 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과시증적 사회라고 해야 하나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략)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마]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났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중략)

1절까지는 엇박자 D도 열심히 립싱크를 해주었다. 간주가 시작되고 2절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반 박자 빨리.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헝클어졌다. 아이들은 우왕좌왕했고, 지휘를 하던 음악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엇박자 D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그만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엇박자 D는 눈을 꼭 감은 채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합창에 관심 없던 주위 사람들이 공연장 앞으로 몰려들었고 엉망진창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우리의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웃었다. 화가 난 음악선생은 반주를 멈추게 했다. 아이들도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눈을 감은 엇박자 D는 멈추지 않았다. 음악선생이 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다. (중략)

엇박자 D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엇박자 D의 인생역정 출연진에 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때 엇박자 D를 때렸던 음악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어찌면 옆에 있던 우리들도 그의 뺨을 함께 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공연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 “짧게 말하자면, 내가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속제가 해결되기라도 해?” / “글쎄, 그건 해봐야 알겠지.” (중략)

총괄 프로듀서는 엇박자 D였고, 나는 무대 매니저 겸 보조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 (중략)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

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바]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앓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뺨뺨어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도 딴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려 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은 짙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늙은이가 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 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옛날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朱子)도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되어,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는 데 전심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자 더 일찍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의 이가 빠진 것도 또한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壽福)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경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을 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리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며, 근심을 떨쳐 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즉 ‘의미에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 내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두 자식을 모두 잃었다. 인생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프랭클은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의미에의 의지’를 발동하여 ‘의미’를 찾고 인생을 견디어 내었다.

하루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가 정전되어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 불안에 떨며 누워 있을 때, 프랭클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그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드디어 수용소 막사 전등에 불이 켜지고 그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몰려오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찾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에게 ‘의미’가 되는 셈이다. 프랭클은 인생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책임과 직결되는 셈이다.

프랭클은 또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에 주목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로 가야 하는 운명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지막 자유로 남아 있다. 그 마지막 남은 자유로 인하여 인간은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자유에 의해 의지는 완성된다.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certainty'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을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의 관점과 제시문 [마]의 '엇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각각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30점]

3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30점]